

# 韓國企業의 社會的 成果評價

학 수 근,\* 김 평 기\*\*

## 《目 次》

- |                     |                          |
|---------------------|--------------------------|
| I. 企業의 社會的 成果評價의 意義 | III. 1992年度 社會的 成果評價의 結果 |
| II. 社會的 成果評價模型의 概要  | IV. 結 言                  |

## I. 企業의 社會的 成果評價의 意義

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기업이 社會生活의 質(quality of life)에 미치는 총체적 영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기업은 재화, 용역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여 사회에 제공하는 동시에 각종 공해나 불건전한 기업관행으로 인한 逆機能의인 影響도 주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純社會的 貢獻度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러한 영향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은 여러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모형은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測定, 監督, 統制하기 위한 하나의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사회복지와 기업발전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모형의 개발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유익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성과평가 메카니즘은 기업활동에 대한 이해집단의 감독과 통제에뿐만 아니라 기업의 自發的인 社會的 役割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현대 多元社會의 다양한 이해집단, 예컨대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보호단체, 노동조합, 일반대중 및 정치단체 기타 특수이해집단들은 그들의 특수한 이해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믿고 있으며 고용창출 등 기업의 다양한 사회적 성과영역의 중요성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이 사회에 純效益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들의 인식과 비판을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기업에 대한 規制만이 증시되어 장기적으로는 민간

\* 서울대학교 經營大學 教授

\*\* 원광대학교 教授

기업의 自律性 마비를 초래하게 될 위험이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종 공해, 자연훼손, 자원고갈 등 기업활동의 역기능적인 측면이 부각됨에 따라 각종 利益集團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압력은 고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진은 점차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기업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이 점차적으로 投資地의 선정, 유전공학, 재앙위험의 평가, 기업활동의 정직성 등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企業倫理의 문제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의 중요성에 비추어,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약칭, 經實聯) 산하 經濟正義研究所(KEJI)의 후원으로 개발한 韓國經濟正義指數(KEJI INDEX)模型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上場企業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적 성과를 파악함과 동시에 추후에 적용될 평가모형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 등 구미선진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가 다양한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다수의 기관에서 정례화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는 때늦은 감이 있으나 KEJI INDEX에 의한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의 시도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시키는 데 다소나마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에서는 기업의 社會的 成果評價의 節次와 方法을 요약한다. 1절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종업원기여도, 기술혁신기여도, 환경기여도, 기업활동의 공정성 및 건전성, 그리고 사회복지기여도 등 5가지 평가요소로 파악하여 55개 지표로 구성되는 모형을 제시하며, 2절에서는 1992년도 기업평가를 위한 모형의 적용절차를 6단계로 나누어 요약한다. 3절에서는 54개 평가지표별로 자료수집원천을 제시하며 4절에서는 모형을 구성하는 지표들의 구체적인 측정방법과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KEJI INDEX모형을 적용한 1992년도 企業評價結果를 分析·要約한다. 1절에서는 평가결과의 분포를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분석하며, 5가지 평가요소가 평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치를 파악하고, 2절에서는 5가지 평가요소의 분포를 규모별, 업종별, 그리고 지표별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 간의 관련성을 수익성, 위험성, 성장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模型의 改善可能性을 제시한다.

## Ⅱ. 社會的 成果評價模型의 概要

### 1. 社會的 成果評價模型

경제정의지수모형(KEJI INDEX 모형)으로 불리는 사회적 성과평가모형은 우리사회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企業像을 설정하고 이러한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社會的 成果評價시스템이다. 다음의 10가지 기업상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구성되었으며 평가모형설계의 기본방향이 되었다.

- ① 창조적인 기업이 정신으로 기술혁신을 강화하는 기업
- ② 산업재해 예방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기업
- ③ 좋은 제품을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기업
- ④ 부의 세습과 소유의 집중을 억제하고 사회환원에 힘쓰는 기업
- ⑤ 환경오염과 산업공해를 예방하는 기업
- ⑥ 법과 기업윤리 안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정보를 성실히 공개하는 기업
- ⑦ 빛(은행)으로 계열기업을 문어발식으로 늘리지 않는 기업
- ⑧ 기업과 경영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실천하는 기업
- ⑨ 재테크와 정경유착의 관행을 극복하는 기업
- ⑩ 사회복지 및 문화부문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

경제정의지수 모형은 財務的 健全性, 從業員寄與度, 技術革新寄與度, 企業활동의 公正性 및 健全性, 環境寄與度, 社會福祉寄與度의 評價要素로 구성되었다. 주요 평가요소들은 세부평가항목으로 다시 구분되었다. 모형의 구축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먼저 주요 평가요소들의 가중치를 결정하고 그 가중치 범위내에서 평가요소들을 구성하는 세부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경제정의지수모형에는 앞에서 언급한 10가지 기준이 모두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일부기준이 計量化하기 어렵거나 평가에 적합한 資料를 입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지수모형의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시한 것은 기업은 일차적으로 유지 성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일차적 목적이 剩餘價値의 創出을 통한 존속에 있으므로 이러한 일차적 목적의 달성이 의심스러운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는 모든 상장기업을 평가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주는 효과도 주었다. 財務

的 健全性이라는 평가요소는 기업의 收益性, 危險性, 成長性, 效率性의 평가항목을 포함하였다.

從業員寄與度에서는 기업조직의 한 부분인 종업원(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복지정도를 평가하였다. 종업원기여도는 크게 작업의 안정성, 인적자원투자, 보상복지후생의 세가지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우리사회에서의 노사화합에 대한 강한 요구를 반영하여 경영공동체적 성과인 종업원기여도에 2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技術革新寄與度は 창조적 기업가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이 국제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평가요소로 구분되었다. 기술혁신기여도는 사실상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나 최근의 사회의 기대를 반영하여 20%의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기술혁신기여도는 연구개발지출, 연구개발인력, 설비투자와 같은 투입노력과 연구개발성과와 같은 산출결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기업활동의 公正性 및 健全성은 주주구성의 건전성, 투자 및 지출의 건전성, 재무적 건전성, 소비자기여, 영업활동의 건전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40%의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주주구성의 건전성에서는 주식분산의 정도와 전문경영체제의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투자지출의 건전성에서는 상호출자, 타인대여, 관계회사 지급보증 등으로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평가하고 과대한 접대비지출이 사회의 과소비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지출을 평가하였다. 財務的 健全성을 일차적으로 평가하여 양호한 기업들만을 평가대상 기업으로 포함하였으나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중요하므로 수익성, 위험성, 그리고 성장성을 중심으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消費者寄與에서는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요인을 평가하였다. 기업활동에서의 소비자만족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차후 소비자만족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높아져야 할 항목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영업활동의 건전성은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사치품 수입과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로 평가하였다.

環境寄與度は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전년도에는 사회복지기여도에 포함되었으나 금년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환경훼손 방지노력과 환경개선 실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20%의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마지막으로 社會福祉寄與度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부분을 평가하고 장애인고용과 성차별고용을 사회복지 항목으로 평가하였으며 해외수출과 고용증대효과로 경제

발전 기여정도를 평가하였다.

<도표 1>은 이상과 같은 經濟正義企業評價模型의 평가항목과 그 가중치, 그리고 세부 평가요소들을 요약한 것이다.

## 2. 社會的 成果評價의 節次

경제정의지수모형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의 절차는 <도표 2>와 같이 크게 6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로 분석대상기업으로 1991년말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비제조업체와 관리대상기업과 3년이상 적자회사등을 제외한 316개 기업을 추출하였다. 비상장기업과 비제조기업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비상장기업은 자료입수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비제조기업은 비교의 어려움 때문에 제외되었다. 제2단계로 재무적 성과가 취약한 기업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재무적 성과는 기업의 유지·존속의 기본이며 유지·존속이 의심스러운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3단계에서는 기업의 공시자료와 관계기관의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세부 평가항목을 측정하였다. 제4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수할 수 없는 자료들을 설문조사에 의하여 평가대상기업으로 부터 직접 입수하였다. 제5단계로 자료에 의해서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항목들은 해당분야 전문가들에게 평가항목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해주고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점수화였다.

## 3. 評價對象 企業의 構成과 資料의 源泉

1991년도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재무적 성과평가의 결과 추출된 241개 상장기업이 평가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의, 企業規模別 및 業種別 構成은 <도표 3>와 같다.

資料의 源泉은 크게 公的資料와 設問資料로 나눌 수 있다. 공적자료는 주로 정부기관의 협조하에 수집하였는데 정부기관의 규제 결과에 대한 자료이며 정부기관이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하여 수집한 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설문자료는 설문서를 기업에 우송하여 수집하였는데, 주로 긍정적 사회적 성과를 설문하였으며 이들의 응답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 4. 測定 및 評價方法

사회공동체적 성과를 반영하는 기업의 從業員寄與度, 技術革新寄與度, 環境寄與度,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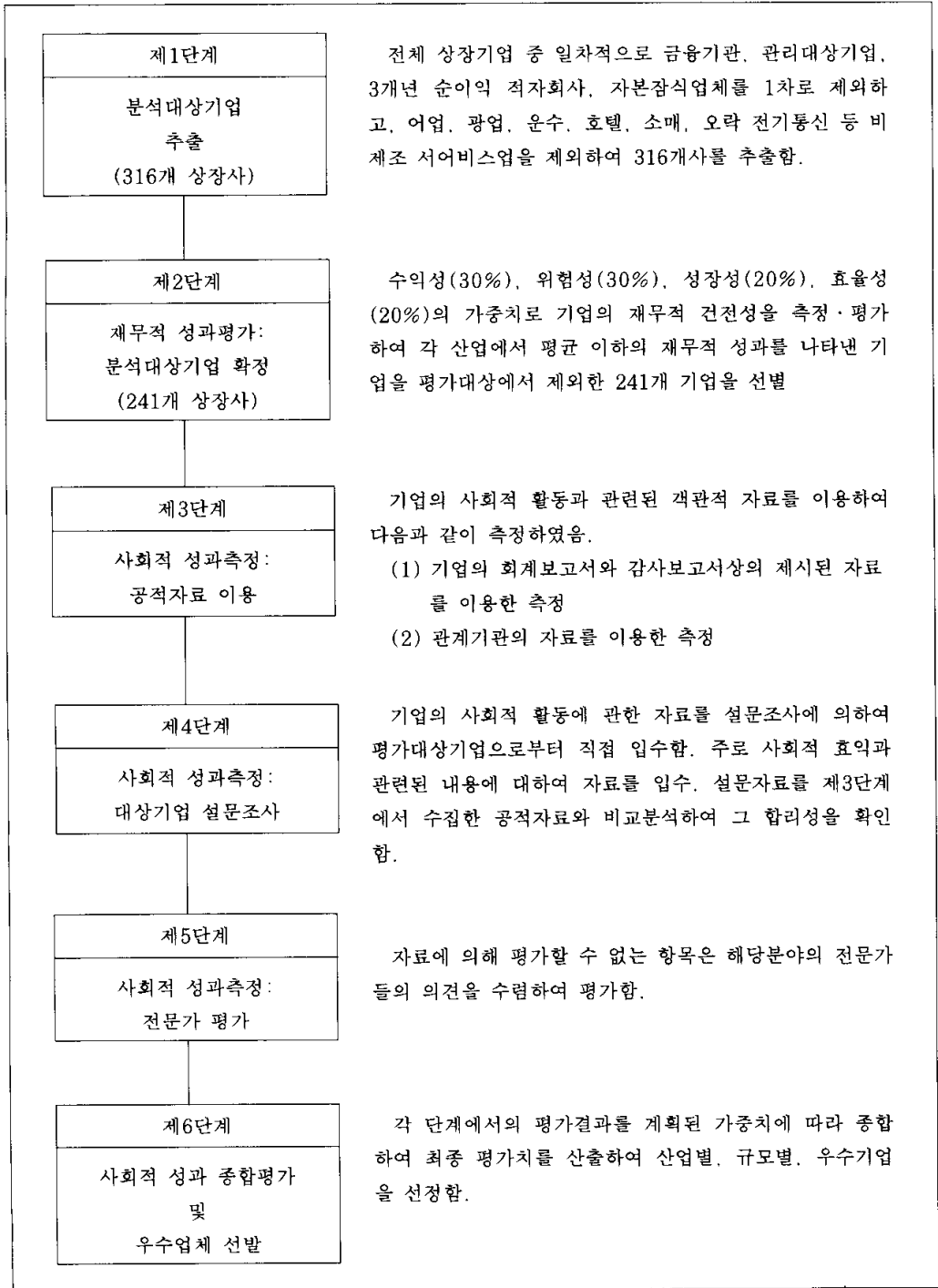
〈도표 1〉 經濟正義企業評價模型

평가항목	가중치 (%)	평가요소	평가지표	비 고
1. 종업원기여도	(20)			
1) 작업의 안전성	6	① 산업재해 ② 무재해 ③ 중대재해 ④ 작업개선 노력	종업원 10명당 건수 무재해달성율 발생건수 실행여부	낮을수록 양호 높을수록 양호 낮을수록 양호
2) 인적자원 투자	6	① 급여 ② 복리후생비 ③ 교육훈련비	종업원 1인당 급여 종업원 1인당 복리후생비 종업원 100인당 교육훈련비	높을수록 양호 높을수록 양호 높을수록 양호
3) 보상복리후생 수준	8	① 종업원지주제도 ② 학자금제도 ③ 사내복지 기금 ④ 사원주택 ⑤ 퇴직충당금 ⑥ 노조의 경영참여	종업원배분율 학자금 지원여부 사내복지기금 설치여부 사원주택 지원여부 퇴직충당금 계상여부 노조의 경영참여 형태	높을수록 양호
2. 기술혁신기여도	(20)			
1) 연구개발 지출	8	① 연구개발비 ② 증가율	매출액 대비율 전년대비	높을수록 양호 높을수록 양호
2) 연구개발 인력	4	① 기술연구소 ② 기술인력	보유수 석박사 연구인력수	높을수록 양호 높을수록 양호
3) 설비투자	2	① 설비투자 ② 증가율	재무상태변동표상 설비투자 전년대비	높을수록 양호 높을수록 양호
4) 연구개발성과	6	① 특허 ② 실용 ③ 장영실상	건수 건수 수상건수	높을수록 양호 높을수록 양호 높을수록 양호
3. 환경기여도	(10)			
1) 공해 등 환경훼손	6	① 환경오염 방지 시설 투자 ② 환경오염 방지 R&D ③ 환경오염방지 전담부서 ④ 독자적 기준 ⑤ 자체시설 보유	매출 10억원당 금액 전담부서/책임자 독자기준 보유여부 보유현황	높을수록 양호 높을수록 양호

〈도표 1〉 계속

평가항목	가중치 (%)	평가요소	평가지표	비 고
2) 환경개선 실적	4	① 수질오염 ② 대기오염 ③ 산업폐기물 ④ 특정 유해물질	발생건수 발생건수 발생건수 발생건수	낮을수록 양호 낮을수록 양호 낮을수록 양호 낮을수록 양호
4. 기업활동의 공정성 건전성	(40)			
1) 주주구성의 건 전성	8	① 소액주주지분율 ② 임원소유비율	사주지분 판별 전문경영인 판별	높을수록 양호 낮을수록 양호
2) 투자, 지출의 건전성	12	① 30대 상호지분율 ② 부동산 ③ 타인대여금/임직원 ④ 지급보증/관계회사 ⑤ 접대비	금액(백만) 금액(백만) 금액(백만) 금액(백만)	낮을수록 양호 낮을수록 양호 낮을수록 양호 낮을수록 양호 낮을수록 양호
3) 재무적 건전성	12	① 수익성 ② 위험성 ③ 성장성	총자본경상이익율 부채비율 매출액성장율	높을수록 양호 낮을수록 양호 높을수록 양호
4) 소비자기여	4	① 사업예산	소비자불만 처리예산	높을수록 양호
5) 영업활동의 건 전성	6	① 전담부서 ② 품질(제품과실) ③ 서비스(회사과실) ④ 소비자 불만처리건수	전담부서/책임자 품질불만율 서비스불만율 건수	높을수록 양호 낮을수록 양호 낮을수록 양호 낮을수록 양호
	4	① 중소기업고유업종 진출 ② 사치품수입 ③ 공정거래 위반건수	건수 액수	낮을수록 양호 낮을수록 양호 낮을수록 양호
5. 사회복지기여도	(10)			
1) 지역사회	3	① 사회복지시설 지원활동 ② 교육연구 지원활동	지원 여부 지원 여부	
2) 사회복지	3	① 장애인 고용 ② 성차별 고용	장애인 고용비율 남여성차별 여부	높을수록 양호 낮을수록 양호
3) 기 타	4	① 해외수출비중 ② 고용증대	수출비율 매출 1억당 고용종업원	높을수록 양호 높을수록 양호

〈도표 2〉 경제정의 기업평가절차





〈도표 3〉 標本構成

구분	분류	표본수
기업규모	① 대형그룹: 매출액 또는 총자산 2000억원 이상	89개
	② 중형그룹: 매출액 또는 총자산 700억원이상 2,000억원 미만	65 "
	③ 소형그룹: 매출액 또는 총자산 700억원 미만	87 "
		241개
업종	① 음식료품: 식료품, 음료수	16개
	② 섬유 의복: 섬유, 의복, 피혁	36 "
	③ 종이제지: 종이, 나무	13 "
	④ 화학: 일반화학, 타이어, 석유제품	40 "
	⑤ 제약	15 "
	⑥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51 "
	⑦ 전기전자	42 "
	⑧ 조립금속, 기계, 자동차	28 "
		241개

업활동의 公正性 및 健全性, 社會福祉寄與度 등 5개 부문 54개 評價指標에 대하여 각 지표의 測定尺度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에 의하여 지표별로 100점 만점의 점수를 구하였다.

1) 二變量 資料: 특정 활동의 유무, 존재여부와 같이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바람직한 활동에 60점,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에 40점을 부여함.

2) 連續型 資料: 평가대상기업의 실적치 平均과 標準偏差를 구하고 〈도표 5〉와 같이 실적치의 평균이 50점이 되도록 하여 표준화된 편차값을 이용하여 점수를 산정함.

3) 기타 형태의 자료: 자료의 형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100점 만점으로 평가.

개별지표의 점수에 앞에서 제시한 加重值를 적용하여 5가지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였다.

$$\begin{aligned} \text{평가점수} &= \text{종업원기여도} * 20\% + \text{기술혁신기여도} * 20\% + \text{환경기여도} * 10\% \\ &+ \text{기업활동의 공정성 및 건전성} * 40\% + \text{사회복지기여도} * 10\% \\ &- \text{기타 고려사항} \end{aligned}$$

위의 모형에 의한 평가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考慮項目은 감점하여 최종적인 평가 점수를 산출하였다.

- (1) 밀수적발 여부
- (2) 공정거래법 위반

〈도표 4〉 活用된 資料의 內容과 源泉

자 료 내 용	자 료 원
1) 환경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오염방지 기술개발 투자금액</li> <li>• 중금속등 유해물질취급 특별점검 대상업체</li> <li>• 30대그룹기업 산업폐기물 배출량, 재활용실적</li> <li>• 1992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현황 및 조치 결과</li> <li>• 산업폐기물 자체처리 매립지 현황</li> <li>• 100대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비/매출액</li> <li>• 1991 환경모범업체</li> <li>• 환경 녹색마크 취득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처</li> <li>• 국회(환경처)</li> <li>• 국회(환경처)</li> <li>• 국회(환경처)</li> <li>• 국회(환경처)</li> <li>• 국회(환경처)</li> <li>• 환경처 기획관리실</li> <li>• 국회(환경처)</li> </ul>
2) 노동 복지 관련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li> <li>• 중대재해 발생 현황</li> <li>• 산업재해 발생 현황</li> <li>• 1992 장애인 고용 유공자 표창</li> <li>• 사 내외 보육시설 설치 현황</li> <li>• 노사관계 표창대상자 명단</li> <li>•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li> <li>• 우리사주 현황</li> <li>• 무재해 달성실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노동부 장애인고용과)</li> <li>• 국회(노동부 산업안전과)</li> <li>• 국회</li> <li>• 노동부(장애인고용과)</li> <li>• 보사부(사회복지과)</li> <li>• 노동부(노사협의회)</li> <li>• 한국증권금융 홍보실</li> <li>• 산업안전관리공단 홍보실</li> </ul>
3) 기술혁신 기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랜트수출실적(1989-91)</li> <li>• 기업부설연구소 현황(1992. 8. 1현재)</li> <li>• 1990.91 최종투자액, 연구인력</li> <li>• 수출 설비투자실태</li> <li>• 장영실상 수상자명단(1989, 90, 91)</li> <li>• 국산신기술개발제품보호실정(1978-1992)</li> <li>• 벤처기업상 수상자 명단</li> <li>• 에너지관리수상</li> <li>• 건설진흥유공자표창</li> <li>• 특허, 실용신안 획득 현황(199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진흥공업협회</li> <li>• 산업기술진흥협회</li> <li>• 과기처, 기술개발과</li> <li>• 한국기술개발</li> <li>• 동자부 에너지관리과</li> <li>• 건설부 건설경제과</li> <li>• 산업기술정보원</li> </ul>
4) 위법적발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li> <li>• 대규모기업 집단계열사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진출현황</li> <li>• 관세부정환급내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li> <li>• 국회(공정거래위원회)</li> <li>• 국회(관세청)</li> </ul>

〈도표 4〉 계속

자 료 내 용	자 료 원
<p>4) 위법적발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재수입 현황</li> <li>• 대규모사업집단 하도급위반사례</li> <li>• 1992 대기업집단 타회사출자, 대주주계약주관련 지분율</li> <li>• 불성실공시</li> <li>• 내부자거래</li> <li>• 밀수적발(1990-92-8)사후조치내역</li> <li>• 의약품(화장품 포함) 과대광고 행정처분실적</li> <li>• 독과점 실태</li> <li>•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실적(고용, 대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관세청)</li> <li>• 국회(공정거래(위)하도급과)</li> <li>• 국회(공정거래위원회 기업관리과)</li> <li>• 증권거래소 기업공시부</li> <li>• 증권거래소 기업공시부</li> <li>• 국회(관세청)</li> <li>• 보사부 약무국</li> <li>• 공정거래위원회</li> <li>• 국회(노동부, 근로기준국)</li> </ul>
<p>5) 기업수상 사회기여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재단설치 현황</li> <li>• 무역의 날 수입대처부문 유공자(1988-91)</li> <li>• 문예진흥기금기부현황(1990-92)</li> <li>• 1990 귀속분 부가세 고액납부자 명단</li> <li>• 1991 대기업사업 중소기업이양실적</li> <li>• 생산성 관리수상업체 명단</li> <li>• 상공의 날 수상자 명단</li> <li>• 하도급 모범업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보도</li> <li>• 무역협회 수입조사과</li> <li>• 문예진흥원</li> <li>• 국세청 부가세과</li> <li>• 상공부 증기진흥과</li> <li>• 생산성본부 생산성향상 추진본부</li> <li>• 상공부 기업지도과</li> <li>• 공정거래(위) 하도급과</li> </ul>
<p>6) 기타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주주지분율</li> <li>• 임원소유지분율</li> <li>• 보유부동산(토지/총자산)</li> <li>• 타인대여</li> <li>• 상호지급보증</li> <li>• 접대비(전년대비)</li> <li>• 전업비율</li> <li>• 수출비중/매출액</li> <li>• 고용증대</li> <li>• 고용의 성차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거래소, 증권감독원</li> <li>• 공시자료</li> </ul>
<p>7) 설문자료(對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환경개선노력</li> <li>• 사원학자금 지원</li> <li>• 사내복지기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기업</li> </ul>

〈도표 4〉 계속

자 료 내 용	자 료 원
7) 설문자료(對기업) • 사원주택지원 • 퇴직충당금예치 • 노조의 경영참여정도 • 환경오염방지 시설투자 • 환경오염방지 연구개발 • 환경관리 전담부서 현황 • 환경관리 전문인력 현황 • 자체보유 환경처리시설 • 환경개선 특별노력 • 자체환경기준 설정여부	

〈도표 5〉 評點計算

조 건	평점화 산출공식
$1.645 \leq Z$	$95 + 2.5 * (Z - P90)/(P95 - P90)$
$1.282 \leq Z < 1.645$	$90 + 5 * (Z - P70)/(P90 - P70)$
$0.526 \leq Z < 1.282$	$70 + 20 * (Z - P30)/(P70 - P30)$
$-0.526 \leq Z < 0.526$	$30 + 40 * (Z - P10)/(P30 - P10)$
$-1.282 \leq Z < -0.526$	$10 + 20 * (Z - P5)/(P10 - P5)$
$-1.645 \leq Z < -1.282$	$5 + 5 * (Z - P0)/(P5 - P0)$
$Z < -1.645$	$0 + 2.5 * (Z - P0)$

(3) 공시사항 위반

(4) 기타사항

이와 같은 고려사항은 그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감점하였으며 대개 1-2점을 감점하였다. 이러한 고려사항에 대한 감점의 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졌다.

### Ⅲ. 社會的 成果評價의 結果

#### 1. 成果評價 結果의 分布

앞 장에서 제시한 평가절차에 따라 1992년도 241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과

를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40.7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가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평균적으로 낮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많은 항목들의 평가가 평균이 50점이 되도록 평점계산을 한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절대적 평가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체 평균이 50점 이하로 나타난 이유는 고려항목에 의한 감점에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평가항목의 유무에 의한 평가에서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아 점수를 낮게 받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수들간의 표준편차는 4.28로 낮게 나타났으며, 241개 기업에서 평가점수 최대값은 54.19이며 최소값은 32.85로 이들간의 範圍가 21.34로 기업들간에 평가점수의 偏差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 또한 점수계산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도표 6>에서 보듯이 평가점수 35.01에서 40.00 구간에 241개 평가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7.1%인 114개 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불균등 분포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不向歪度를 갖는 수준의 평가점수를 보이고 있다.

<도표 7>은 사회적 성과평가 점수가 企業規模별로 그리고 8개 業種別로 有意的인 差異를 보이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分散分析(ANOVA)을 수행한 결과이다. 도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 두 요인 각각의 집단들간의 차이에 대한 事後檢證方法으로 던칸 節次(Duncan Procedure)를 적용하였다.

분산분석의 결과 사회적 성과평가 점수는 기업규모와 업종별로 유의적인 차이(모두 유의확률 0.000)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기업규모별로 요구되는 社會的 責任과 정부의 規制水準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며, 업종별로는 기업이 속하는 産業의 屬性에 따라 5가지 평가요소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기전자 산업은 타업종에 비해 製品의 壽命週期가 짧아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수준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섬유·의복업, 종이제지업, 그리고 화학업 등은 환경오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은 소기업과 중기업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보이고 있으나, 중기업과 소기업 간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模型의 문제로 인하여 대기업이 중기업이나 소기업에 비하여 企業規模 效果에 의해 지수가 높게 산정된다면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形평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

〈도표 6〉 評價點數의 分布

평점구간	빈도수		비율
50.01 —	6		2.5
45.01 — 50.00	38		15.7
40.01 — 45.00	73		30.2
35.01 — 40.00		114	47.1
10.00 — 35.00	11		4.5
평균값	40.70	표준편차	4.28
최소값	32.85	최대값	54.19

〈도표 7〉 評價點數의 分散分析表

Source of Varia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nif of F
Main Effects	1,252.988	9	139.221	10.510	.000
SIZE	855.666	2	427.833	32.298	.000
ID	462.915	7	66.131	4.992	.000
2-way Interactions	216.634	13	16.687	1.260	.239
SIZE ID	216.934	13	16.687	1.260	.239
Explained	1,469.922	22	66.815	5.044	.000
Residual	2,874.446	217	13.246		
Total	4,344.368	239	18.177		

을 것이다. 따라서, 평가점수를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별로 별도로 산출하였으며 企業別順位도 각 企業規模集團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業種別로도 평가점수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기전자, 기계 및 자동차, 화학, 제약업, 음식료업이 높게 나타난 반면, 종이제지, 섬유 의복, 금속(1차, 비금속, 조립 금속) 등의 업종에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産業特性이 기업의 社會的 成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또한 앞에서의 기업 규모와 相互作用에 의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종이제지, 섬유 의복, 금속업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다른 산업에 비하여 勞動集約的인 産業으로 분류될 수 있어 여러가지 면에서 사회적 성과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성과평가 점수를 5가지 평가요소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분명하

〈도표 8〉 평가점수의 規模別 業種別 分布

	제지	섬유	금속	음식	제약	화학	기계	전기	전체
대기업	41.55	41.97	39.40	44.23	45.87	41.19	46.14	46.16	43.12
	10	12	3	15	1	25	15	8	89
중기업	40.53	27.55	68.21	38.64	42.13	68.35	41.90	39.44	39.37
	6	11	6	10	5	10	9	7	64
소기업	.00	37.56	36.36	69.78	39.77	39.75	37.75	40.67	39.36
	0	12	4	15	9	16	19	12	87
전체	41.17	69.16	37.81	41.13	40.98	40.06	42.43	41.38	40.75
	16	35	13	40	15	51	43	27	240

\*각 cell에서 위의 수치는 평점평균을, 그리고 아래의 수치는 표본수를 나타냄.

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9〉는 종업원기여도, 기술혁신기여도, 환경기여도, 기업활동의 공정성 및 건전성, 그리고 사회복지기여도 등 5가지 評價要素가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位置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횡축에는 5가지 평가요소의 平均實績(이는 5가지 요소별 평점평균을 5가지 요소별 가중치로 나누어 구한다)을 그리고 종축에는 5가지 평가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평가점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한 결과에 의해 얻어진 5가지 독립변수의 標準回歸係數인  $\beta$ 값을 표시한다.

5가지 평가요소별 가중치가 기업활동의 공정성 및 건전성(40), 종업원 기여도와 기술혁신기여도(각각 20), 사회복지기여도와 환경기여도(각각 10)의 순이었다. 그러나 5가지 요소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즉  $\beta$ 값은 기술혁신기여도(0.47), 종업원기여도(0.42), 기업활동의 공정성 및 건전성(0.29), 환경기여도(0.26), 사회복지기여도(0.23)의 순으로 나타나, 본래 모형에서의 의도와는 달리 技術革新寄與度가 평가점수에 큰 영향을 미친 반면 기업활동의 公正性 및 健全性은 정의지수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評價指標의 選定이나 資料蒐集상의 問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도표 9〉의 매트릭스에서 평가 요소의 평균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기업활동의 公正性 및 健全性이 0.44로 가장 높으며 環境寄與度가 0.3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 요소간에 편차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9〉의 매트릭스에서 가장 바람직한 위치는 우상 구역으로서 이 영역에서는 평가요소의 평점이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

적 성과가 평균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beta$  값이 높기 때문에 각 기업의 성과가 평가점수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므로 기업별로 成果를 差別化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도표 9>의 매트릭스에서 5가지 평가요소가 모두 평균실적이 낮아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적 성과는 저조할뿐만 아니라  $\beta$ 값도 評價模型의 加重植를 반영하지 못하여 평가지표의 선정이나 자료의 수집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評價要素別 分布

<도표 10>은 從業員寄與度の 평점평균의 기업규모별, 업종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종업원기여도는 평균실적이 0.43,  $\beta$ 값은 0.42로서 기술혁신기여도 다음으로 평가점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이다. 즉, 종업원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은 기업일수록 다른 평가요소의 영향에 비하여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20점의 가중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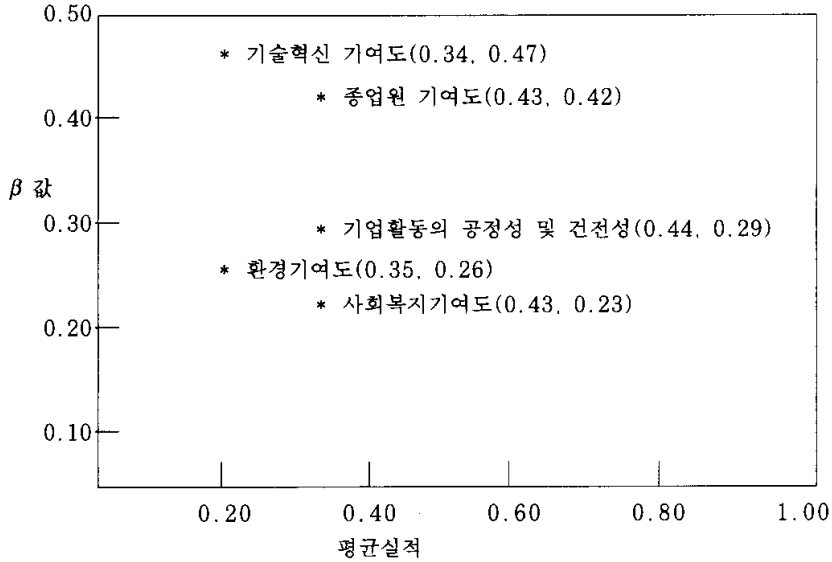
종업원기여도의 전체평균은 8.61,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5.59, 13.41로 나타났으며, 분산분석 결과 企業規模와 業種別로 有意의인(유의확률, 각각 0.000)평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규모별로는 대기기업이 평균 9.61로서 중기업의 8.05, 소기업의 8.00보다 유의적으로 높게(Duncan Procedure 유의확률 0.000) 나타났으나, 중기업과 소기업간 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는 앞의(도표 6)의 평가점수의 분포에서와 동일하며 종업원기여도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약(9.31), 음식료품(9.21), 그리고 화학(9.15)등의 업종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 의복(7.61)과 종이제지업(7.98)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종업원기여도의 下位評價要素에서 작업의 안정성은 평균 12.11, 표준편차 2.99, 인적자원투자는 평균 13.83, 표준편차 3.99, 그리고 보상복리후생수준은 평균 16.99, 표준편차 5.83으로 보상복리후생수준에서 기업별로 다소 높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技術革新寄與度は 5가지 평가요소 중에서 가중치는 2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製品의 壽命週期가 비교적 짧아 기술투자가 많은 전자업종이 높은 평가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기술혁신기여도의 평점평균은 6.81, 그리고 평균실적은 0.34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기업들



〈도표 9〉 주요 評價要素의 平均-β값 매트릭스



1) 평균실적=5요소별 평점평균/5요소별 가중치

예) 환경기여도의 평균실적=3.52/10=0.35

2) β값은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의 표준회귀계수이다

$$KEJI\ INDEX = a + b1 \cdot TECH + b2 \cdot SCL + b3 \cdot JST + b4 \cdot EMP + b5 \cdot ENV$$

여기에서 TECH, SCL, JST, EMP, ENV는 각각 기술혁신기여도, 사회복지기여도, 기업활동의 공정성 및 건전성, 종업원 기여도, 환경기여도 등을 나타낸다.

〈도표 10〉 從業員寄與度分布

	제지	섬유	금속	음식	제약	화학	기계	전기	전체
대기업	9.72	8.59	9.53	10.46	11.25	9.15	9.78	10.40	9.61
	10	12	3	15	1	25	15	8	89
중기업	8.95	7.47	7.74	7.73	10.31	7.71	8.11	7.72	8.15
	6	11	6	10	5	10	9	7	64
소기업	.00	6.90	7.19	8.78	8.55	8.19	7.78	8.04	8.00
	0	12	4	15	9	16	19	12	87
전체	9.43	7.66	7.98	9.15	9.31	8.57	8.55	8.66	8.64
	16	35	13	40	15	51	43	27	240

\*각 cell에서 위의 수치는 평점평균을, 그리고 아래의 수치는 표본수를 나타냄.

의 技術開發 活動이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값 15.92, 최소값 4.07, 그리고 표준편차는 2.03으로 5가지 요소 중 가장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 간에 기술개발활동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를 <도표 11>에서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8.10), 중기업(6.14), 그리고 소기업(5.98)의 순으로 나타나 企業規模가 클수록 技術關聯活動이 활발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分散分析에서도 유의적인 결과(유의확률 0.000)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7.85), 기계업종(7.74)에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종이제지(5.44), 금속, 섬유·의복, 제약업종(각각 6.31)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혁신기여도에서는 분산분석 결과 기업규모와 업종이 相互作用效果(유의확률 0.01)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약, 기계, 전기전자업에서는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금속, 화학업종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섬유, 금속, 전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소기업이 중기업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기도 한다.

기술혁신기여도의 하위평가요소에서 연구개발지출은 평균 10.78, 표준편차 3.36, 연구개발인력은 평균 6.40, 표준편차 3.52, 설비투자는 평균 3.79, 표준편차 1.39, 그리고 연구개발성과는 평균 12.97, 표준편차가 6.39로 研究開發成果의 기업별 偏差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環境寄與度는 평점평균 3.52로서 가중치 10에 대비한 실적평균이 0.35에 그쳐 다른 평가요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beta$ 값도 0.26으로 사회복지기여도를 제외한 다른 평가요소에 비하여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

<도표 11> 技術革新寄與度の 分布

	제지	섬유	금속	음식	제약	화학	기계	전기	전체
대기업	7.39	8.34	5.72	8.00	10.12	6.80	9.72	10.47	8.10
	10	12	3	15	1	25	15	8	89
중기업	6.52	5.27	5.30	5.82	6.10	5.99	7.77	6.55	6.14
	6	11	6	10	5	10	9	7	64
소기업	.00	5.42	5.43	5.77	6.01	5.74	6.40	6.61	5.98
	0	12	4	15	9	16	19	12	87
전	7.06	6.37	5.44	6.62	6.31	6.31	7.85	7.74	6.81
체	16	35	13	40	15	51	43	27	240

\*각 cell에서 위의 수치는 평점평균을, 그리고 아래의 수치는 표본수를 나타냄.

향이 낮은 요소이다. 최소값이 2.08, 최대값은 6.91, 그리고 표준편차가 1.12로 기업들 간에 큰 差異를 보이지 않는다.

환경기여도에 대한 分散分析의 결과 企業規模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8개 業種別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12>의 환경기여도 분포에서 기업규모별로는 다른 평가요소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평균 4.07로 중기업 3.16과 소기업 3.23에 비하여 유의적으로(Duncan Procedure의 유의수준 0.10)높게 나타났으나, 소기업은 오히려 중기업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보여 중소기업 간에는 환경기여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下位評價要素에서 환경훼손 방지노력의 평균이 20.12, 표준편차가 11.00, 환경개선실적의 평균이 15.04 표준편차가 1.93으로 환경개선 실적에 비하여 環境毀損 防止努力은 기업들간에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기업활동의 公正性 및 健全性 요소는 模型에서 가중치 40으로 다른 요소에 비하여 2배 내지 4배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그러나 분석의 결과 기업활동의 公正性 및 健全性 요소가 실제로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혁신기여도(가중치 20), 종업원기여도(가중치 20)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正義指數에 대한 敏感度를 나타내는  $\beta$ 값을 보면 기술혁신기여도와 종업원기여도 각각 0.47, 0.42에 비하여 매우 낮은 0.29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종업원기여도의 하위평가지표가 기업들 간의 기업활동의 公正性 및 健全性 정도를 변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指標의 選定이나 測定過程의 문제에 기인할 수 있다. 模型에서 고려하지 못한 追加的인 指標가 있을 수 있으며 資料蒐集過程에서 낮은 수준의 測定尺度(예컨대, 0과 1)에 기인하거나,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

<도표 12> 環境寄與度の 分布

	제지	섭유	금속	음식	계약	화학	기계	전기	전체
대기업	3.71	3.59	3.58	4.45	3.59	6.83	4.37	4.91	4.07
	10	12	3	15	1	25	15	8	89
중기업	3.37	3.07	3.38	2.94	3.47	3.17	3.17	2.95	3.15
	6	11	6	10	5	10	9	7	64
소기업	.00	2.94	2.62	3.33	3.17	3.45	3.29	3.26	3.23
	0	12	4	15	9	16	19	12	87
전	3.58	3.20	3.19	3.65	3.29	3.58	3.64	3.67	3.52
체	16	35	13	40	15	51	43	27	240

\*각 cell에서 위의 수치는 평점평균을, 그리고 아래의 수치는 표본수를 나타냄.

들의 활동에 있어서 공정성과 건전성 수준이 기업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분석의 결과, 기업활동의 公正性 및 健全性 요소의 평균은 17.51로 加重值 40에 대비한 實績平均은 0.44로 다른 요소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최대값 20.67, 최소값 13.25, 그리고 표준편차 1.26으로 매우 낮은 기업별 偏差를 보이고 있어, 앞에서 지적한 평가점수에 대한 낮은 영향도를 시사하고 있다.

分散分析에서는 앞의 환경기여도와 마찬가지로 기업규모별로 유의적인 차이(유의확률, 0.000)를 보이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표 13>에서의 기업규모별 분포에서는 다른 평가요소들과는 달리 小企業 中企業(각각 평균, 17.89)이 大企業의 평균 16.86에 비하여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Duncan Procedure의 유의확률은 각각 0.10), 이미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否定的인 慣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활동의 공정성 및 건전성의 하위요소중 주주구성의 건전성은 평균 6.69, 표준편차 0.69를 보여 비교적 企業別로 낮은 偏差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 및 지출의 건전성도 평균 3.43, 표준편차 0.97로 전반적으로 下位評價要素 모두 기업별로 낮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社會福祉寄與度は 평균 4.32, 표준편차 0.97, 최대값 7.12, 그리고 최소값은 2.39이며, 가중치 10과 대비한 實績平均은 0.43으로 다른 평가요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

<도표 13> 기업활동의 公正性 및 健全性의 分布

	제지	섬유	금속	음식	계약	화학	기계	전기	전체
대기업	16.67	16.21	17.35	16.85	15.89	17.39	17.12	15.86	16.86
	10	12	3	15	1	25	15	8	89
중기업	18.23	17.53	17.75	18.16	18.10	17.60	17.78	18.29	17.89
	6	11	6	10	5	10	9	7	64
소기업	17.00	17.88	18.10	17.90	17.86	18.02	17.52	18.24	17.89
	0	12	4	15	9	16	19	12	87
전체	17.25	17.20	17.77	17.57	17.81	17.63	17.43	17.55	17.51
	16	35	13	40	15	51	43	27	240

\*각 cell에서 위의 수치는 평점평균을, 그리고 아래의 수치는 표본수를 나타냄.

계 나타났으나 기업들간에 편차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 절에서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5개 평가요소 중에서 가장 낮은( $\beta$ 값 0.23) 것으로 나타났다.

分散分析의 결과, 規模 및 業鍾別로 유의적인 차이(유의확률 각각 0.13, 0.000)를 보이고 있으며, <도표 14>의 사회복지기여도의 분포에서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평균 4.48로 중기업 4.13에 비하여 有意的으로 높은(DUNCAN Procedure의 유의확률 0.10) 社會福祉 活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기업은 평균 4.13으로 오히려 소기업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業鍾別로는 전기전자업(평균 4.95)이 다른 업종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사회복지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섬유(4.58), 기계(4.36)등 업종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종이제지(3.54)와 음식식품(3.76)등의 업종은 다른 평가요소와 마찬가지로 타업종에 비하여 다소 낮은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평가요소별로 지역사회공헌과 기타 요소는 각각 평균 9.99, 18.66, 표준편차 5.21, 7.48로 기업들간에 偏差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활동에서는 평균 14.30, 표준편차 2.34로 기업들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社會的 成果와 財務的 成果와의 關聯性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企業의 社會的 成果'를 기업이 生活의 質(quality of life)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왔다. 보다 엄밀하게 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직접적으로 또는 기업의

<도표 14> 社會福祉寄與度の 分布

	제지	섬유	금속	음식	제약	화학	기계	전기	전체
대기업	4.06	5.24	3.22	4.47	5.11	4.02	5.15	4.52	4.48
	10	12	3	15	1	25	15	8	89
중기업	3.47	4.20	4.04	4.00	4.20	3.88	5.07	3.92	4.13
	6	11	6	10	5	10	9	7	64
소기업	.00	4.42	3.02	6.93	4.19	4.06	4.75	4.52	4.27
	0	12	4	15	9	16	19	12	87
전체	3.84	4.63	3.54	4.15	4.25	4.00	4.95	4.36	4.31
	16	35	13	40	15	51	43	27	240

\*각 cell에서 위의 수치는 평점평균을, 그리고 아래의 수치는 표본수를 나타냄.

활동으로 종업원이나 다른 기업관계자들에 의해서 취해진, 社會의 利益을 증진시키는 行爲들로 정의할 수 있다. '社會의 利益增進'은 기업 내외적으로 사회구성요인에 대하여 미치는 純效益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일부 학자들은 사회에 대한 순효익을 결정할 경우 기업의 自發的인 行爲만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政府規制의 이행과 같은 비자발적인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만일 社會的 內容(social content)의 측정치에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점수산정에서 자발적 행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기업의 總體的인 社會的 成果를 측정할 경우에는 자발적 및 비자발적인 행위 모두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경영자들은 기업의 성과는 多元的이기 때문에 단순한 利益概念을 확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企業의 論理를 利益極大化에 두고 이에 따라 시장 수익율이 극대화되고 資源配分の 效率性이 달성된다고 하는 믿음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익측정치가 정밀하지 못하고, 改良된 社會成果는 이익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적 성과목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長短期的인 利益을 改善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개량된 사회적 성과는 기업의 이익에 貢獻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살펴보자. 흥미롭게도 사회적 목표의 성취가 장기적인 이익에 공헌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利益極大化와 兩立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만일 사회적 목적의 성취가 사회조직을 강화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營業環境을 改善하여 기업의 건실화에 도움이 된다. 비록 익명의 寄附行爲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더라도 최고경영층의 마음에는 장기적인 기업전망을 제고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기부금은 근로자를 위한 社會福祉活動에 투자되어 생산성을 높이거나 또는 소비자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져 결국 구매 및 소비력을 높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에 공헌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기업의 利益과 社會的 貢

<도표 15> 社會的 成果가 企業利益에 미치는 影響

	이익증가	영향없음	이익감소	무응답
단기적	18명 13.6%	59명 44.7%	46명 34.8%	9명 6.8%
장기적	75 56.8	32 24.2	12 9.1	139 9.88

\*자료원: Brooks(1984., p.14)

任 간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왔으며 지금으로서는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이익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Schroeder가 1983년에 캐나다의 大企業 經營者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132명의 응답자 중 상당수가 기업의 社會的 成果가 기업의 단기적 또는 장기적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연금기금, 상호기금, 신용기금 및 교회기금 등의 새로운 주주들이 주식지분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이들은 利益 이외의 要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부 投資基金 經營者들은 기업이 社會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투자자 계층은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은 연대하여 기업이 전통적인 소유자와는 달리 社會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의 社會的 契約을 進化하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다.

기업의 社會계약이 발전함에 따라 주주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이나 집단들이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 또는 몫을 갖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경영자, 종업원과 노동조합, 지역사회, 대출자, 공급자, 고객 및 정부 등은 주주와 함께 기업의 利害關係者(interested parties)가 되었으며, 이들을 'stakeholders' 라고 한다. 과거에는 주주들의 일부만이 기업활동을 조직적이고 정규적으로 公示하도록 요구할 능력과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社會의 높은 지식수준과 언론이나 노조를 통하여 출발된 公共壓力은 정치가나 정부로 하여금 기업경영자에 대한 規制力을 높이고 있으며, 서구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기업의 社會的 成果를 公表하고 있는 실정이다.

#### 1) 財務的 成果의 分布

〈도표 17〉은 〈도표 16〉과 같은 재무적 성과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산출된 평가기업들의 재무적 성과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도표 16〉의 財務的 成果評價模型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크게 收益性, 危險性, 成長性, 그리고 效率性으로 구분하여 수익성과 위험성에 각각 30, 성장성과 효율성에 각각 20의 가중치를 두어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社會的 成果에 초점을 두는 본 연구의 취지에 비추어 기업의 적극적인 成長보다는 存續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도표 17〉은 財務成果를 구성하는 수익성, 안전성, 성장성, 그리고 효율성 등 4가지 요소에 대한 기업들의 實績值 分布를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달성도(평균/가중치)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도표 17〉을 보면 우선 4가지 재무적 성과요소의 評點平均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가중치 대비 달성도가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收益性和 成長性 요소에 대한 평점은 기업들 간에

〈도표 16〉 財務的 成果評價模型

평가항목		계산합계	가중치
수익성	총자본경상이익율	(경상이익/총자본) * 100%	12.5
	매출액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 * 100%	12.5
	경상이익증가율	(당기/전기-1) * 100%	5
	소계		30
위험성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15
	이자비용/Cashflow	(이자비용/Cashflow) * 100%	15
	소계		30
수익성	매출액성장율(3개년)	(당기/전기-1) * 100%	10
	총자산성장율(3개년)	(당기/전기-1) * 100%	10
	소계		20
효율성	자본생산성	부가가치/기계설비	5
	증가율	(당기/전기-1) * 100%	5
	노동생산성	부가가치/종업원	5
	증가율	(당기/전기-1) * 100%	5
	소계		20
합계			100

〈도표 17〉 財務成果 要素의 分布

	가중치	평균	표준편차	달성도
재무성과	100	54.63	7.49	54.63
수익성	30	17.34	4.57	57.80
안전성	30	15.65	3.36	52.20
성장성	20	11.21	1.20	56.05
효율성	20	10.42	2.45	5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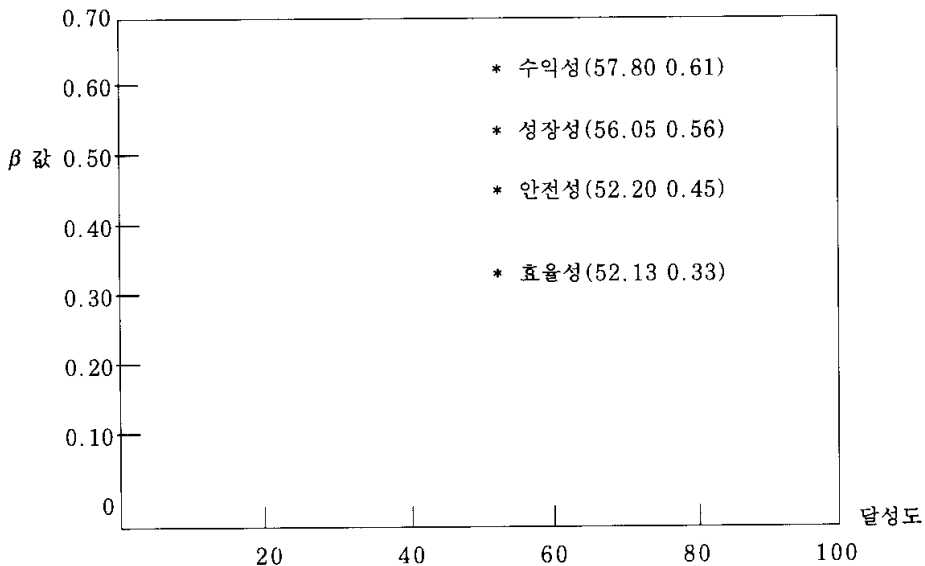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재무적인 건실도를 나타내는 안전성이나 기업자금과 영업자산의 효율적인 이용도를 반영하는 효율성 평점은 기업들 간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금까지 여러 기존연구들에서 제기되어 온 우리나라 기업



들의 높은 外部資金 依存도와 낮은 經營效率性を 본 분석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도표 18〉의 4가지 財務成果 評價要素의 平均-β값 매트릭스에서 4가지 평가요소들의 달성도는 50點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요소들간에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 데 비하여, β 값에서는 4 요소간의 偏差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도표에서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높은 재무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며, 이것은 앞의 財務成果模型에서 예상되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앞의 모형에서 4가지 요소별 加重值가 수익성과 안전성이 각각 30%, 그리고 성장성과 효율성이 각각 20%로 수익성과 안전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실제의 분석결과는 안전성보다는 성장성이 기업의 財務的 成果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他人資本 依存도가 높아 기업들 간의 安全性이 差別化되지 않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도표 17〉의 4가지 요소들 간의 표준편차를 비교할 경우 명백해진다. 즉, 4가지 요소별 표준편차가, 수익성, 성장성,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이는 〈도표 18〉에서 β값의 順位와 일치하고 있다.

〈도표 18〉 4要素의 平均-β값 매트릭스



1) 달성도는〈도표 17〉를 참조하며, β값은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의 표준회귀계수이다.

$$Y = a + b_1 * X_1 + b_2 * X_2 + b_3 * X_3 + b_4 * X_4$$

위의 식에서 Y, X1, X2, X3, 그리고 X4는 각각 재무성과, 수익성, 성장성,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을 나타낸다.

〈도표 19〉에서 財務成果의 評點分布를 企業規模별로 보면, 앞에서의 사회적 성과와는 반대로 대기업이 50.03으로 중기업 57.24에 비하여 낮으며, 〈도표 20〉의 分散分析에서 규모효과는 0.000의 유의확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企業規模 效果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産業別로도 재무성과에서 유의적인 차이(유의확률 0.018)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섬유업과 제약업종의 재무성과가 높은 것으로, 그리고 제지, 음식, 전기전자업의 재무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무성과의 분포를 재무성과를 구성하는 4가지 下位評價要素별로 보면, 대기업

〈도표 19〉 財務成果의 分布

	제지	섬유	금속	음식	제약	화학	기계	전기	전체
대기업	52.65	52.39	48.88	48.15	38.58	49.29	52.86	45.64	50.03
	10	12	3	15	1	25	15	8	89
중기업	52.92	62.88	59.69	54.28	60.06	57.95	56.57	53.67	57.42
	6	11	6	10	5	10	9	7	64
소기업	.00	59.25	54.97	56.91	57.71	57.62	57.07	55.81	57.24
	0	12	4	15	9	16	19	12	87
전	52.75	58.04	55.74	52.97	57.22	53.60	55.49	52.24	54.61
체	16	35	13	40	15	51	43	27	240

\*각 cell에서 위의 수치는 평점평균을, 그리고 아래의 수치는 표본수를 나타냄.

〈도표 20〉 財務成果의 分散分析表

Source of Variation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nif of F
Main Effects	3.694.923	9	410.547	9.851	.000
SIZE	2.765.218	2	1.382.609	33.175	.000
ID	721.177	7	103.025	2.472	.018
2-way Interactions	709.400	13	54.569	1.309	.209
SIZE ID	709.400	13	54.569	1.309	.209
Explained	4.404.323	22	200.197	4.804	.000
Residual	9.043.825	217	41.677		
Total	13.448.148	239	56.268		

은 중소기업에 비하여 수익성과 효율성이 저조하며 특히 收益性의 경우 대기업이 14.89로 중기업 18.99, 소기업 18.61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성의 경우 대기업이 14.40, 중기업은 15.43, 그리고 소기업이 17.07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安定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에 있어서는 기업규모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産業別로는 섬유, 제약, 그리고 기계업에서 높은 수익성을 보인 반면 제지, 금속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익성을 보였다. 섬유, 금속업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그리고 제지, 기계, 전기업은 낮은 위험도를 보이고 있다. 제지, 금속업의 경우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음식, 전기업에서는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兩 成果指標의 關聯性

<도표 21>은 기업의 社會的 成果와 財務的 成果간의 關聯性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성과지표와 하위평가요소들간의 相關關係를 나타낸 것으로, 많은 항목들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업의 총체적인 사회적 성과지표인 KEJI 指數와 財務成果 評點간의 상관관계는 예상과는 달리 (-)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성과가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성과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성과의 하위요소별로는 기업활동의 공정성 및 건전성을 제외한 4가지 요소가 모두 재무적 성과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社會的 成果는 財務成果의 下位要素 중 성장성을 제외한 3가지 요소와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안전성의 경우에는 有意的인 關係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활동의 公正性과 健全性의 경우 재무적 성과와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재무적 성과의 총점, 수익성, 그리고 안전성과는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무적 성과요소 중 成長性은, 비록 유의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사회복지기여도를 제외한 모

<도표 21> 社會的 成果와 財務的 成果의 評價要素간의 피어슨 相關關係

사회적 성과 재무적 성과	KEJI 지 수	종업원 기.여도	기술혁신 기여도	환경 기여도	공정성 건전성	사회복지 기여도
재무적 성과	-.1980*	-.1519*	-.3195**	-.1665*	.3037**	-.1267
수익성	-.0939	-.1393	-.1686*	-.1587*	.2864**	.0074
안전성	-.2947**	-.2841**	-.3652**	-.1785*	.1888*	-.0510
성장성	.0463	.0207	.0179	.0312	.0391	-.0688
효율성	-.1041	.0479	-.1915*	-.0207	.0697	-.2131**

\*, \*\*는 단측검증에서 각각 0.01, 0.001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든 사회적 성과요소와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社會的 成果評價模型에서 산출된 사회적 성과척도와 앞에서 제시된 기업의 수익성, 안전성, 성장성, 그리고 효율성으로 측정되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간에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回歸模型은 두가지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두 모형 모두 從屬變數는 기업의 財務的 成果(financial performance)이며, 첫번째 모형에서는 KEJI모형에서 산출된 기업별 社會的 成果(총점)와 기업의 재무적 성과점수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두번째 모형에서는 5가지 사회적 성과의 측정요소들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text{모형 1: } FP = a + b_1 * \text{SIZE} + b_2 * \text{SP}$$

FP: 재무적 성과

SIZE: 기업규모(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구분)

SP: 사회적 성과(social performance)=KEJI INDEX

$$\text{모형 2: } FP = a + b_1 * \text{TECH} + b_2 * \text{SCL} + b_3 * \text{JSP} + b_4 * \text{EMP} + b_5 * \text{ENV}$$

TECH: 기술혁신기여도

SCL: 사회복지기여도

JSP: 기업활동의 공정성 및 건전성

EMP: 종업원기여도

ENV: 환경기여도

이러한 모형을 檢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두가지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의 社會的 活動이 財務的 成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함으로써 경제적 기관인 기업이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문제, 즉 기업의 社會的 責任 수행과 관련된 價値判斷 문제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贊反兩論이 있다. 만일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문제와 경제적 성과를 추구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는, 두 성과지표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KEJI INDEX 模型의 潛在的인 問題點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의 결과 기업의 사회적 성과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否定的인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과연 사회적 성과평가 모형에 문제점이 있는가 또는 실제로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재무적 성과에 기여하지 못하

기 때문인가의 구별은 어려울 것이다. KEJI INDEX 모형의 경우 기업의 社會的 活動을 多面的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모형도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 지표간의 관련성은 결국 우리 企業現實에서의 실제상황을 상당히 근사하게 나타내 주리라고 판단한다.

〈도표 22〉는 회귀모형 1을 검증한 결과이다. 도표에서는 規模가 큰 기업일수록 기업의 財務的 成果가 양호(유의확률 0.0000)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업의 社會的 成果는 재무적 성과에 공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유의성은 없다)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적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성과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社會的 活動은 재무적 성과에 기여하지 못하고 企業 本然의 活動이라고 할 수 있는 經濟性 또는 生産性 追求에 逆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면 재무적 성과가 낮아진다고 보다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사회적 활동을 財務的 成果로 연결시키는 戰略的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民主化, 국제적 開放化 물결과 함께 기업 특히 재벌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정부의 規制強化 趨勢와 노동조합,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각종 압력단체들의 활동이 거세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기업이 사회적 활동(책임)을 적극적으로 재무적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戰略的인 方向摸索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표 22〉 模型1의 回歸分析

Analysis of Varian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Regression	2	2328.03281	1164.01641		
Residual	237	11120.03281	46.92032		
F=	24.80837	Singni F = .0000			
Variable	B	SE B	Beta	T	Sig T
SIZE	3.45765	.55810	.39554	6.195	.0000
SP	-.08423	-.11233	-.04787	-.750	.4541
(Constant)	51.15973	5.12342		9.985	.0000
	Multiple R		.41607		
	R Square		.17311		
	Adjusted R Square		.16613		
	Standard Error		6.84984		

〈도표 23〉은 回歸模型 2의 검증결과로서 표에서는 기업의 技術革新寄與도와 기업활동의 公正性 및 健全性 등과 재무적 성과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혁신기여도의 경우 技術革新 活動을 활발히 한 기업의 財務的 成果가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기업활동의 公正性 및 健全性은 재무적 성과와 긍정적인 관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回歸模型의 單純性을 고려할때 지나치게 강조될 수는 없다고 본다.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의 영향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이러한 요인들을 거의 統制하지 못한 점은 분석결과를 크게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V. 結 言

1992년도 기업의 社會的 成果評價模型은 아직 개발의 초기단계이므로 改善의 여지가 많으며 경제정의기업 評價事業 자체도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도표 23〉 模型 2의 回歸分析

Analysis of Varian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Regression	5	1859.59382	371.91876		
Residual	234	11588.59382	49.52374		
F=	7.50991	Singni F = .0000			
Variable	B	SE B	Beta	T	Sig T
TECH	-.81855	.27963	-.22089	-2.927	.0038
SCL	-.22735	.54830	-.02913	-.415	.6788
JST	1.22350	.40193	.20465	3.044	.0026
EMP	.10871	.40748	.02573	.267	.7899
ENV	-.23132	.67737	-.03464	-.342	.7330
(Constant)	39.62718	8.2374		4.811	.0000
Multiple R				.37186	
R Square				.13828	
Adjusted R Square				.11987	
Standard Error				7.03731	

것이다.

우선, 評價模型의 精巧化를 위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社會의 期待와 要求를 파악하기 위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평가모형이 이용자들의 意思決定과 行動을 위한 指針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評價項目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가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가중치의 결정을 위한 폭넓은 合意導出過程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세분된 평가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평가분야별로 평가모형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평가항목과 가중치가 상이한 業種別 評價模型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는 資料源泉의 擴大를 들 수 있다. 현재의 模型에서는 국회나 정부기관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나 기업의 공시자료와 같이 公的인 計量的 情報가 많이 이용되었으나, 기업내부의 경영자, 전문가, 소비자, 그리고 일반대중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면접 등을 통해 直接的으로 入手한 情報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보호단체 등 시민단체나 기업활동 감시기구들과의 情報共有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評點 및 等級方法의 改善으로 현재의 모형이 1등과 2등 기업을 구분해 낼 수 있는 辨別力을 가지고 있을 만큼 정교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企業規模別로 등위를 매기는 것 보다는 10等級 또는 5等級體系로 離散的인 尺度로 평점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수기업 또는 수상기업의 선정은 1등급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合意過程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業種別 評價模型에 의하여 업종별 우수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거나 評價要素別로 개별적인 모형에 의하여 우수기업(예: 우수 환경기업, 우수 노사관계기업, 우수 기술혁신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기업경영자, 이해관계자, 그리고 일반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이해가능하도록 기술하여 小冊子로 출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情報公開를 위한 制度的 與件의 改善으로 정부 규제기관들이 법집행, 행정규제 등 활동의 결과를 일반에게 보다 많이 그리고 신속히 공개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정부규제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는 정부의 規制緩和 方向과 일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가능한 한 정부의 규제보다는 기업의 自發的인 情報公開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은 종업원보고서, 환경보고서, 소비자보고서, 사회보고서 등의 형식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활동의 社會的 影響을 널리 알림으로써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사회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法的 制度가 선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經濟正義企業 評價事業에 대한 支援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정의연구소 내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 사업의 位相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정부기관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情報의 提供者이면서 동시에 情報의 利用者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企業關聯 行政情報를 경제정의 기업평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사업에 대한 豫算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기업과 공기업,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평가모형의 개발과 평가작업에 共同으로 參與하도록 하고 人的, 物的 支援을 유도하는 것이 평가작업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國內文獻〉

- 김원수, 기업환경론: 변화, 적응 그리고 창조, 다산출판사, 1991.
- 박창길, 광수근, 서정우 공역, 사회경제회계, 법문사, 1991.
- 신유근, 기업과 사회: 경영환경론, 경문사, 1986.
- 신유근, 한정화, 한국기업의 사회참여활동,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사회개발원, 1990.
- 정구현, 박태규, 박상용,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봉사, 장기신용은행부설 경영연구원, 1991.
- 최종태, 한국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관한 연구, 상공회의소, 1989.

### 〈外國文獻〉

-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The Measurement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ICPA, 1977.
- L. Brooks, *Canadia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The Society of Management Accountants of Canada, 1986.
- R. Burke, *Decision Making in Complex Times: The Contribution of a Social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The Society of Management Accountants of Canada, 1984.